

<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

디모데전서 6:11,12 / 새찬송가 8 (통일 9)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1.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인 바 영생을 취하기 위해 먼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투쟁입니다. 삶의 축복은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몸도 바이러스와 세균등과 우리의 면역체계가 서로 싸우고 있는 유기체입니다. 건강은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였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죄와 질병과 저주와 싸우는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위해 우리는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 믿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을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는 일이 일어났습니다(행 14:8-10). 이는 죄와 질병과 저주의 악에 빠져있다가도 은혜의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 '구원받는 믿음'을 말합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어 병을 고침 받은 여인의 믿음도 그렇습니다(눅8:48). 여리고에 살던 소경거리 바 디매오의 믿음도 그렇습니다(눅18:42,43). 바리새인 시몬의 동네에 살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믿음도 그렇습니다(눅7:50).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죄와 마귀와 적과 싸우는 적극적인 믿음이 있는데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입니다(히10:38). 주님은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마치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무찔렀습니다(삼상17:45-47).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엄습하는 골리앗은 죄의 유혹, 질병, 문제와 저주, 그리고 세상 통치자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고 저주와 병마를 멀하여 병을 고치고 우리 대한민국도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주장한다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이런 악한 것들을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신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소극적인 신앙이란 출애굽의 기적을 봐도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바로 그때에 원수 아말렉이 공격했습니다. 이때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모세가 손을 올려 기도하였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출17:8-13). 이처럼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3. 구원받을만한 믿음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해 구원받을만한 믿음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으로 나아가 매사에 영적으로 판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란 바로 이를 의미합니다(롬1:16,17).

또 기도의 방향전환 즉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여쭙보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아가 천사장 미가엘과 천군천사들이 내려와 악한 마귀 귀신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합니다.

시편18편에서 다윗은 처음에는 구원을 받을만한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시18:3-6). 마지막 부분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시18:37-40).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자신이 주님의 율례를 저버리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시18:21-24).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주님의 말씀 즉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기뻐하며 따라야 하겠습니다(딤펴6:11,12).

<적용&실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리라며 강하고 담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들을 묶고 내쫓으면서 주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이 이끄는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땅의 악한 마귀와 귀신들을 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